

## 사이고 다카모리: 가고시마의 민중 영웅

사이고 다카모리(1828~1877)는 일본 역사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무라이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는 도쿠가와 막부를 무너뜨리고 제국 통치를 부활시키는 것을 도와 1868년 메이지 유신 시대를 열었습니다. 사이고는 사무라이의 미덕과 강인함의 상징으로 일본 전역에서 존경받는 인물입니다. 특히 그의 출생지인 가고시마에서는 '세고돈'이라는 애칭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고돈은 이부스키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으며 지역 곳곳에서 그의 일생과 관련 있는 것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나기호수 근처의 온천 마을인 우나기온천에 자주 머물렀습니다. 야마가와 현지 돌을 깎아 세고돈과 그의 여러 사냥개 중 한 마리를 묘사하여 만든 석상이 마을에 세워져 있습니다. 이부스키 중심부에 있는 사쓰마 덴쇼칸 지역미술 및 역사 박물관에는 손목 시계, 유명한 전투를 담은 목판화 등 세고돈과 관련된 다양한 물품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세고돈이 좋아했던 사냥터인 가이몬다케를 오르는 등산객은 전설 속 지도자의 발자취를 따라 걷게 됩니다.

이부스키 방문객은 세고돈의 짙은 눈썹과 레슬링 선수처럼 건장한 체격을 위엄 있는 청동상부터 회화적인 열쇠고리까지 어디에서든 만나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고시마가 이 고향 영웅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여기는지 알 수 있습니다.